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구령을 준비하는 교회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5절

Tag: 김현영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4:1-5)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이단들의 종말론에 있다. 1992년 재림사건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당시에는 사회가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를 걱정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반동의 기회는 많았는데, 한국교회는 놓치고 말았다. 다만 명맥을 유지하는데만 힘을 내었다.

왜 그랬을까? 전도의 방법에서 참신한 방법을 찾기 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7-80년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를 이용해서 전도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단순한 믿음을 율법으로 과대포장하였다.

믿음과 복음은 기복신앙으로 대체되었다.

구원의 기쁨이나 경건생활은 율법주의로 대체 되었다.

물론 기복신앙도 맞고, 구원의 기쁨도 맞다.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는다. 3-4대에 이르러 행복한 가정을 이룬 집 안도 수두룩하다. 이걸 사실 팩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교회생활을 지속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복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말이긴 하다.

대부분의 열정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복도, 세속적인 복도 받았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낙오자는 있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부족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근근히 버티면서 살거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율법주의는 가혹하기까지 하다.

또 값싼 구원을 마치 면죄부처럼 여기는 성도들도 많다.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값 없는 구원이 맞다.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지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55:1)

그러나 값 없는 구원은, 값을 길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의미하지, 회개와 겸손 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세속적인 버릇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지, 그 사랑이 벗어버려야 할 세속을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세속적인 요소는 자신의 삶을 갹아먹는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복은 못 받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하지 않는가?

교회들이 채찍을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가 되면 채찍을 맞는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경건생활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한국교회

는 그것을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율법주의로 탈바꿈 시켰다.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생활에 매우 헌신적이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주일성수하라, 십일조하라, 봉사하라(찬양대, 주방, 주일학교, 전도특공대, 각종 기도모임, 봉사활동, 남선교회, 여전도회 등, 구역예배, 심방대원)

나중에는 영적인 각성이 없이 율법주의를 통해서도 훌륭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결국 무늬만 성도인(알맹이는 아니고) 교인들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 받고, 소개 받고, 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도 같이하고 물건도 서로 팔아 주면서 영적인 교제가 아닌, 세속적인 교제에 더 신경쓰는 무리들도 생겨났다.

심지어 교단 총회가 정치관이 되기도 했다. 닭이 알 낳듯이 200여 총회가 매년 총회장을 배출하고, 그보다 더 많은 노회가 노회장을 배출한다.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되리라는 공식이 성립되었고, 은혜는 만사형통을 부르는 공식이 되었다. 그러는 중에 비리도 은혜로 덮였고, 몰상식도 은혜로 덮였다. 서서히 교회스러운 관행이 세상으로부터 외면 당하기 시작했는데, 장작 본인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점점 도덕 기준이 세속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세속적 기준보다 더 느슨해지기도 했다.

어떤 교인은 함부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기도와 헌금으로 교만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한 청년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 좌파사상으로 교육받은 청년들도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월은 바뀌었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들도 많아졌다. 심지어 '종교자유정책연구원(+뉴스앤조이)'이라는 단체도

생겨나서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울산대학 '이정훈교수'가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일 때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의 채플거부 사건을 중심으로 '종자연'을 만들었다. 법률가들 중 불교신도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기독교를 공격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국가공무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과 비슷한 반기독교적 법률(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등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

국가공무법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은 크리스찬들이 포교활동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입법이 추진되다가 여전히 갑론을박중이다. 왜냐면 이정훈교수가 회심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직장에서 매우 강력하게 전도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은 기독교를 겨냥한 법이나 다름 없다.

\*여전히 뉴조에서는 이정훈교수를 비판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아이러니 하게도 신학교 교수들이다.

현재 우리 신학교에는 대부분 좌파 성향 교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파 교수님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제시대부터 기독교지성을 가장한 좌파성향 지성인들이 많았고, 이들은 기독교사상과 같은 계간지들을 통해서 수없이 좌파성향의 신학을 수입해 왔다. 내가 신학교에 다니던 80년대에는 민중신학이 매우 유명해서 문희석교수의 책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못할 지경이었다.

이들은 교회의 물량주의, 기복신앙, 대형교회화, 교회세습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심지어 카톨릭과의 일치운동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고질화를 꿈꾸고 있으며, 익명의 그리스도인 교리를 받아들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서구적 크리스찬을 꿈꾸고 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으니, 뭐 어찌겠는가?

다만 그들이 신앙의 자유로 신앙을 압박하지는 말아야 하리라.

전도는 신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전도를 법으로 금한다면 그것이 곧 신앙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전도할 것이다.

만약 전도를 강요처럼 한다면, 믿음을 강요한다면, 불신 자체를 저주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당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말은 저주가 아니다. 팩트이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에는 더 유화된 표현을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할 이유도 없다.

다만 믿고 싶지 않는 사람이 기분 나쁠수도 있다.

그렇다고 당장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니고, 들었으니 한번 쯤 골똘히 생각해 봄직한 말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또는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서 심하게는 기분 나쁘다고 욕하거나 때릴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핍박이라 한다.

믿지 않을 자유가 있을 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교회는 이 전도 방해의 문제를 세심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연구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도는 선한 행동 가운데 가장 선한 행동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면 전도가 영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사도 때가 있고, 전도도 때가 있다.

-장사는 팔릴때는 분주하지만, 한가할 때는 준비한다.

-전도도 지금은 열심히 준비할 때다. 전도의 파도가 밀물일 때가 온다.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명단을 작성하고 슬로건을 만들고 기도도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이다.

3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가 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말에 솔깃하다.

-우리 나라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끝까지 하는 나라다.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4:1-5)

- 그러나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깊이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 고난을 두려워 말고,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자.
  - 전도자의 일을 하자.
  -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가 되어 자신이 맡은 직무를 다하자.
- 아멘.

## <찬양예배>

제목 : 요엘서 성경공부

성경: 요엘서 2장

### Tag:

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 아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의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6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낮빛이 하얗졌도다

7 그들이 용사 같이 달리며 무사 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



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12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5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17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도

22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을 2:1-32)

요엘; 여호와와 하나님

요아스왕 시절 (B.C. 830 OR 586) 의 예언자(브두엘의 아들)

때뚜기 재앙과 이스라엘

-재앙은 하나님의 채찍. 여호와의 날.

-온 인류가 현재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있다.

-재앙이라는 형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재앙의 원인

1 종교 ; 종교적 극단은 한사람의 절대적 지위로 일어난다.

-이단과 교주

-카톨릭과 교황

-이슬람과 모함마드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아즈텍 잉카문명; 인신공양

2 성적 타락 ;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일본의 잦은 지진 등.

3 율법주의 ; 이스라엘

\*재앙의 종류

-자연재해

-인명사고

-경제적 부도

\*재앙을 당하는 우리의 할 일

-12절; 내게로 돌아오라

-17절;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올라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후에 성령을 부어 주리라

28절;

3장; 유다를 회복 하시는 하나님